

사경(寫經)으로 만난 부처님 (상)

예수해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어릴 때부터 불교가정에서 자라 자연스럽게 부처님께 귀했지만 접을 찾는 횟수는 그리 많지 않았다. 간혹 마음이 심란할 때면 접을 찾곤 했는데, 접에 가서도 법회에 참석할 임두는 내지 못하고 법당에서 삼배만 하고 돌아오곤 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14년 동안 부산 지역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나는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은 마음에 1987년, 학교를 그만두고 친척 어른이 운영하는 증권 건설회사에 취직하게 됐다. 수주담당 임원이었던 나는 주로 조달청 등의 관공서에서 입찰에 관여했다. 입찰 방법은 지금의 로또 복권 추첨과 같아서 운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곤 했다.

특히 수주담당 임원에게는 조건 좋은 관공사를 많이 수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추첨 운이 따르지 않으면 수주 담당자의 마음 고초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

나의 한순간 실수로 회사의 존폐가 결정되는 일에서 하루하루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순수한 학생들 속에서 생활하다가 경정이 치열한 건설공사 수주 현장에서 생활하다 보니 마음의 갈등은 커질 수밖에 없었다. 또한 전무로 일하면서 회사의 보증도 서게 됐다. 당시 건설회사의 관례상 임원이 회사의 보증을 서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이 결국 나와 내 가정의 발목을 잡는 족쇄임을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

얼마 후 나는 회사의 보증을 선 전로 엄청난 빚을 떠안게 되고, 집안 살림은 엉망이 되어 버렸다. 졸지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뿐이었다. 하지만 가장으로서 내가 먼저 마음의 안정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집 근처 절에 자주 나가 기도를 했고, 그 무렵부

터 사경을 시작하게 됐다. 오래 전부터 붓글씨에 관심이 있었던 나는 가끔 붓을 잡아 보곤 했지만 막상 사경을 한답시고 한자 위에 한자 한자 정성을 다해보았건만 정말 글씨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답답한 마음과 원망하는 마음, 풀어나가기 힘든 번뇌를 떨치기 위해 밤을 새워 붓 끝에 매달려 보았지만 솜씨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그래도 가끔씩 사경한 것이 마음에 들 때면 후일 이것을 남에게도 나눠 줘야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사경을 했다.

매일같이 사경을 하다보니 경전의 글씨 한 자 한 자 정성스럽게 쓰는 것이 곧 기도라 다르지 않은 것임을 알게 됐다. 또한 사경을 하다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 경전을 다 외우게 됐고, 신심도 따라서 커져 사경과 독송 그리고 예불하는 것을 매일 거르지 않게 됐다. 또한 경전에 담긴 뜻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관련 서적도 찾아 읽게 됐다.

10년 가까이 사경을 해 오던 중 부산 전포동에 있는 기봉사라는 절의 법당 보살이 나를 찾아와 "사경의 복보다 보시의 복이

회사 보증 서주고 엄청난 빚 떠안게 돼 마음 안정 찾기위해 매일 사경에 전념 주말마다 일심으로 기도하니 잘 풀려

당시에는 특히 <반야심경> 270자에 매달렸다. 회사를 마치고 오면 매일 저녁 <반야심경>을 사경했다. 한 번 쓰기 시작하면 3-4시간은 족히 걸렸는데, 어떨 때는 새벽 1-2시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회사에 나갈 때는 전날 저녁에 사경한 것을 품에 지니고 나갔고, 그럴 때면 하루 종일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은 물론, 입찰도 순조롭게 진행됐다. 일이 잘 풀려가자 나 자신도, 우리 가정도 안정을 되찾았고 그럴수록 무슨 일든 행동하기 전에 남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자고 자신을 추스르곤 했다. 이런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하는 생각에 더욱 기도와 정진에 매진했다.

크다'고 하면서 사경한 <반야심경>을 사할 신도들에게 보시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의해 왔다. 나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지만 보시하는 일이 될 수 있고 아울러 베풀어 줄 일이라는 생각도 들어 보편하고 있던 사경본들을 하나하나 가져와 500여 점을 그 법당 보살님께 보내줬다.

이후 1997년부터는 <금강경>에 매료되어 독송하고 사경하는 것을 더 큰 공덕으로 보고 수년을 힘써 왔지만 아직도 글자와 뜻에 매달려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으니 정말 하근기임을 실감하고 있다.

회사일이 안정을 되찾으면서 주말마다 전국의 사찰을 두루 찾아다니며 기도를



그림 · 문병성

올렸는데, 그 중에서도 기도처로 이름 있는 봉정암과 흥련암, 보리암, 보문사, 구인사 등을 자주 찾았다. 특히 24시간 열불소리가 그치지 않는 봉정암과 법당이 앉아 신년 해돋이를 볼 수 있었던 보리암이 무척 인상적이었다. 또 구인사 대조사전이 개관하는 날에는 첫 참배를 올리겠다는 생각에 산 중턱 사리문 앞에서 1시간 넘게 기다려 제일 먼저 법당에 들어서기도 했다. 하지만 새벽바람에 온 몸이 얼어 버린 듯 몸을 가눌 수 없어 절도 제대로 못하고 나온 기억도 오랫동안 소중환 추억으로 남아있다.

기도처인 산사에서 맞이하는 맑은 도회지에서 찌든 세속의 나의 마음을 완전히 여윈 듯 편안하게 만들고 밤새도록 울려 퍼지는 열불소리와 묵락소리는 세속을 떠난 세계로 나를 인도하는 듯 했으며 나도 모르게 밀려오는 그 어떤 느낌은 말로 잘 표현할 수 없는 묘한 감정이었다.

이 감정과 내 지극한 기도가 합일하면 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도처를 자주 찾게 되었다.

지난해 겨울, 영화사 미륵전에서 백일기도를 했을 때도 생각한다. 미륵전이 대웅전 뒤편 산중턱에 자리한 임시 건물이라서 한기가 뼈 속까지 파고드는 듯 했지만 수백명의 도반들과 함께 백일기도를 시작했다. 모두가 기도에 전념하여 추위는 잊은 듯 진지한 모습이었다. 나도 분위기에 끌려서 신심이 배가 되어 열심히 기도를 했다.

백일기도가 거의 끝나갈 무렵의 어느 날,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기도를 하던 중 우리 회사에 공사가 낙찰됐다는 보고를 받았다. 아마도 그것은 열심히 기도를 올린 나에게 주신 부처님의 가르침과 생각되어 기쁨을 금할 수 없었다.

또한 백일기도를 회향하면서 같이 기도한 모든 보살님들의 소원이 성취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계속)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폭풍 담이두었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한 소정의 고료를 드리고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4줄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51
- 인터넷 접수: snoopy@buddhapia.com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이시린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현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 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교재주문: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온라인 번호: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김문기)
 ●속성강의 접수: 1개월 과정 (매일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참고: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장소: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대체의학과 수강생 모집 안내

1. 모집기간: 수시모집 (지역 교육원에서 접수)
 2. 교육과목
 ●법화경(교양필수)
 ●황제내경(교양필수)
 ●운동요법·추나요법
 ●자연요법·식이요법
 ●교정요법·침구요법
 3. 교육기간: 4년(8학기) 수료
 4. 교육일시
 ●대 구: 화요일 오후 2시 - 4시
 ●부 산: 목요일 오후 2시 - 4시
 *특강: 매일 첫째일요일 오후 1시30분-4시 (대구교육원)
 5. 교육장소
 ●대 구: 동대구역 옆 동대구빌딩3층
 ●부 산: 부산역 옆 삼진빌딩2층
 6. 기타특전
 ●수료증서 수여
 ●중국 중의대 자격증 취득(검정후)
 ●대체의학요법사 자격증 취득(검정후)
 ●평생대학원 진학자격부여
 7. 문의전화: (053)952-8711. 017-501-8711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 4동 276-25번지

교육법인: 한국평생교육기구

韓國平生大學(院)

당뇨병 희소식!!

당뇨로 고생하시는분 고통에서 벗어나십시오

본 사찰에서 극비리 전해 내려오는 비법과 본인이 기도로 얻은 비방으로 당뇨를 해결해 드립니다.

1. 당뇨수치 높은 분
2. 합병증으로 고생 하시는 분
3. 발병한지 오래되고 약을 먹어도 치료가 안되시는 분.
4. 당뇨때문에 생활에 지장이 있는 분

대한불교 해월정사

경남 마산시 성호동 73-4번지
 전 화: 055)241-0374
 휴대폰: 011-833-0374

※남녀 행사 모집합니다.

승복법복 판매 안내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1. 고급 모직(울세탁)	적삼, 바지 150,000 ~ 180,000 동방바지 190,000 ~ 210,000 두루막 140,000 ~ 170,000
2. 무명(면, 순면)	적삼, 바지 180,000 동방, 바지 220,000 두루막 170,000
3. 마(국내산 면물 염색)	적삼, 바지 150,000 동방, 바지 190,000 두루막 140,000
4. 면 · 폴 안해도 됨(면물 염색)	적삼, 바지 150,000 동방, 바지 190,000 두루막 140,000
5. 울 · 모시론	적삼, 바지 150,000 동방, 바지 190,000 두루막 140,000
6. 장삼	고급모직 220,000 ~ 250,000
7. 가사	바가사 150,000 ~ 200,000 반가사 70,000 ~ 100,000
8. 신도용 조끼 · 바지(모직 황도 면물염색)	

■사원한 차이나 남방, 모지, 걸방,손가방 준비되어있습니다.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역판매점 모집)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전시장: 053-256-0108
 공장: 053-425-4449
 휴대폰: 016-597-4449
 019-438-0108

아름승복

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 3가 88번지 (동삼아파트 주차장 내)

바로 그달마도

신비한 영험이 깃든 지명스님 달마도

"성령찬 기운이 충만한 지명스님 달마도와 함께 삶의 희망을 키워보십시오"

지명보살 가피암은 신비의 달마도의 특별한 인연으로 지명스님은 오늘도 수도 정진하는 가운데 청정하고 정갈한 공간에서 달마도를 원력삼아 고단한 우리네 삶에 광명의 빛으로 다가오고 계시다.

인연있는 자만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신비한 지명스님 달마도를 당신 곁에 두시어 소망하시는 바를 꼭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지명스님과 함께 상담을...
 불교를 알고자 하시는 분이나 이유없이 고통스러운 분, 사업, 취업, 진학, 질병, 매매, 애정, 주변갈등등 남모르게 고민하는 인간사의 모든 장애를 친절하게 상담해 시원하게 풀어 드립니다. (액자달마, 병풍달마)

각자의 근기따라 108가지의 다양한 달마도가 있으니 각기 자기와 맞는 달마도를 스님과 상담 후 인연 맞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02)2663-6655 010-4616-3335
 서울시 강서구 방화 2동 달마사 지명 합장